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영암에 첫 열차역 생겼다

27일 영암역 영업 개시... 영암군, 주요 관광지 경유 버스 하루 8회 운영

영암군에 사상 처음으로 열차역이 생겨 목포와 보성을 오가는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된다.

남해안권 철도망의 핵심축인 목포-보성선이 26일 신보성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정식 개통함에 따라, 확산된 '영암역'이,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잇는 노선으로, 하루 열차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역 신설로 그동안 철도를 이용하려면 목포나 나주 등 인근 역을 찾아야 했던 영암군민들은, 영암 내에서 바로 남해안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행 열차는 영암역에서 신보성역까지를 45분 만에 연결하는데, 열차가

없던 시절 두 구간은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걸렸던 거리다.

이달 22일 열차표 예매가 시작됐고, 27일부터 목포-보성선 탑승도 이뤄지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군민과 관광객 등을 위해 영암역을 중심으로 연결 대중교통을 강화했다.

열차 시간에 맞춰 영암읍과 영암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매일 8회씩 운영하며, 콜택시도 상시 대기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버스는 월출산기차랜드,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왕인박사유적지, 영암도기박물관 등 영암의 관광 명소도 경유하고 있어 기차여행 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암군은 주요 간선도로 안내표지판에는 영암역 표기를 완료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목포-보성선에 2030년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남해안 고속철도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번 영암역 신설이 지역 물류 활성화, 관광 접근성 제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및 해상불꽃쇼 특별공연

군민과 귀성·관광객이 함께하는 드론과 불꽃의 향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4일, 6일, 7일 3일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드론쇼 및 해상불꽃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4일(토) '달빛미술관(민화관) ▲10월 6일(일) '달토끼와 함께하는 추석' ▲10월 7일(화) '고흥, 가을나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낮에는 제기, 굴렁쇠,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해 녹동항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6일 추석 당일에는 1,500대 규모의 드론에 불꽃을 부착한 불꽃드론쇼를 선보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군민과 귀성·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가을밤을 선물할 계획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 특별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지역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별한 드론쇼와 해상불꽃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고흥의 매력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부터 개최한 녹동항 드론쇼는 누적 관광객 51만여 명, 43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통해 고흥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는 오는 10월 25일 폐막식을 앞두고 있으며,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 생활비를 경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안사랑상품권' 100억원 발행과 2차 소비쿠폰 89억 여원을 지급하며 추석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상품권 765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국비(32.5

무안군, 추석맞이 '무안사랑상품권' 100억 원 발행

억) 지원을 받아 지난 설 명절보다 2배 많은 100억 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하여 추석 성수기 지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지류 축소 방침에 따라 이번 발행되는 지류 상품권은 30억원이며, 모바일은 70억원으로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무안사랑상품권은 13% 할인율이 적용

돼 50만 원 상품권을 43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등 관내 4,283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무안군 제공

카메라 뉴스



함평군, 수도권서 '살기 좋은 내 고장 함평' 알렸다

전남 함평군이(군수 이상익) 수도권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내 고장 함평'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시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에서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은 정착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농산어촌유학 제도 등 종합적인 귀농·귀촌 제도를 안내해, 도시민들이 함평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며 함평 농업의 경쟁력과 매력을 널리 알렸다.

함평/전광훈 기자



구례군 산동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가구 대문 새단장

전남 구례군 산동면(면장 임체덕)은 지난 9월 26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산동면 내 취약가구 5가구를 방문해 노후된 대문을 도색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색이 바래고 벗겨진 대문을 새롭게 도색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자긍심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지기동대원들은 대문 표면의 녹을 제거한 뒤, 꼼꼼히 새 도료를 칠해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정비했다. 새롭게 단장된 대문은 외부와 가정을 연결하는 첫인상을 바꾸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과 마을 환경 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 추석 명절 맞이 '청림 실천 캠페인' 전개

장흥군은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앞에서 '청림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청 공직자 100여 명이 참여해 건전한 명절 문화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날 공직자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청림 실천을 다짐하며 군민 신뢰를 높였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명절을 전후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림 문화를 군정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청림 시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